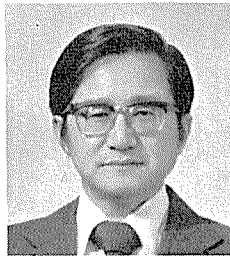


## ● 振興컬럼

# 팩시밀리 붐 造成의 方案

金 貞 欽  
高麗大 教授 / 理博



### 便紙나 電報보다 빠른 電話

그 옛날 下宿生들은 돈이 급할 때 고향 부모님들에게 速達便紙를 보내거나 電報를 쳤었다. 「돈을 보내 주시오」라고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大學生들은 특하면 直接 受話機를 들고 故鄉에 電話를 건다. 「下宿費를 보내 주세요」하고 말이다. 電話保有台수가 9月末로 드디어 千万台를 돌파했고, 따라서 이제 우리도 一家口 一電話의 時代로부터 一人 一電話의 時代를 向해 새로운 旅程에 나선 때이니 말이다.

그 電話는 무척이나 편리하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肉聲으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다. 이 얼마나 놀랍고 新奇하고 또 편리한 일인가 말이다. 그러니 만약 옛날 高祖父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광경을 보신다면 틀림없이 氣絶을 하셨을 것이다. 蔚山사람이 漢陽사람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놀랄 수밖에!

高祖父 뿐만 아니라 實은 브라질 皇帝도 電話機를 처음 만져 보았을 때는 깜짝 놀랐었다고 한다.

1876年 6月 25日의 일이다. 美國 필라델피아 市에서 열린 美國 獨立 100週年 記念 万国博覽會에 出品된 電話機를 든 皇帝는 깜짝 놀라고

「야 놀랐군 놀랐어! 이 기계는 정말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하고 소리를 쳤다고 한다. 그러자 뉴욕 타임즈紙는 皇帝가 電話機를 귀에 댄 모습의 写真과 함께 이 사실을 크게 報道해냈다고 한다. 덕분에 브라질 皇帝는 人類史上 最初로 電話會話を 한 皇帝로서 이름이 後世에 남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電話機 자체도 널리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꼭 111年前의 일이다.

### 電話의 短点を 補完해주는 팩시밀리

그러나 그 電話에도 短점은 있다. 우선 相對方이 不在時에는 회화를 할 수가 없다. 또 記錄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틀림없이 나는 365라고 이야기 했단 말이야」, 「아닌걸, 난 틀림 없이 465로 들었던 말이야」하고 서로 우겨대는 것은 보통이다. 그렇다고 電話할 때마다 일일이 錄音을 해둔다는 것도 성가신 일이고, 또 상대방의 양해없이 錄音을 한다는 것은 法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電話로는 상대방에게 그림이나 写真說明을 해줄 수가 없다. 예컨대 아름답게 생긴 얼굴이란 어떤 얼굴일까? 맵시있게 입은 옷이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런 것을 한참 동안 말로 설명하노라면 40분이나 50분은 쉽게 지나간다. 서울서 光州 또는 서울서 釜山까지라면 40分 通話에 料金は 1万 7,150원, 50분이라면 2万 1,450원이나 된다. 억울하리만큼 비싼 料金이다. 새마을 号 汽車값(서울-釜山: 1万 4,300원, 서울-光州: 9,500원)보다도 훨씬 더 비싼 料金이다.

그러나 서울 本社에서 긴급히 大邱支社에게 月間 財政明細를 보고하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한 페이지 가득히 실린 各種 財政數字들. 그것을 일일이 電話로 불러주고, 혹시 잘못 들을까봐 두번 세번 되풀이해서 불러주고 또 復唱까지 해가면서 받아 쓰노라면 40分~50分은 잠깐 동안에 지나간다. 그 결과 月末이 되면 一金 2万여원의 電話料金 告知書가 나오게 된다.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런 요청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팩시밀리(facsimile) 즉 模写電送裝置이다. 보내고자 하는 文字나 그림 또는 写真의 原本을 팩시밀리 유리板 위에 얹어놓고 서울에서 단추만 누르면 멀리 436km나 떨어진 釜山에서 그 原稿와 完全히 닮은 複写가 印画가 되어 나오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해 팩시밀리란 電話 줄로 연결해서 쓰는 遠隔操作 複写機였던 것이다. 그 결과 예컨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美國

国会図書館을 電話로 불러내고, 그 図書館만이 갖는 稀貴資料마저도 複写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 情報化時代의 들도 없는 새 武器

그 팩시밀리는 情報傳達의 수단으로서 이제 비지니스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품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電話·텔레क्स·郵便·電報 등 情報傳達의 수단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팩시밀리처럼 正確性·記錄性·常時交信性(便利性)·情報內容의 任意性·迅速性·操作 容易性·經濟性 등등에서 높이 評價되고 있는 情報傳達手段은 달리 없다. 즉 文字

表 1 팩시밀리와 各種 通信手段의 機能 比較

	팩 시 밀 리	電 話	텔 렉 스	郵 便
情報傳達의 正確性	○ 原稿를 있는 그대로 正確히 模写	△ 잘못 듣는 수가 있다.	△ 打字手의 잘못으로 誤字가 들어갈 危險性이 있다.	○ 原稿를 있는 그대로 送達
情報傳達의 迅速性	○ 빠르다. 一枚당 10~60秒	○ 빠르다. 그러나 相對方을 納得시키는데 30~40分	△ 打字를 쳐서 보내므로 느리다.	× 速達로도 24時間以上에서 數日이 걸린다.
操作의 容易性	○ 누구나 쉽게 操作할 수 있다.	○ 누구나 쉽게 걸 수 있다.	× 專門的 打字手가 必要하다.	○ 누구나 利用可能
常時 交信性	○ 相對方이 不在中에도 보낼 수 있다.	× 相對方이 不在時에는 通話 不能	○ 相對方이 不在時에도 보낼 수 있다.	○ 相對方이 不在時에도 보낼 수 있다.
同報性	○ 同時에 몇10 몇 100 곳으로도 단 추하나로 보낼 수 있다.	△ 기껏해야 3人通話밖에 못한다.	○ 同時에 여러곳에 보낼 수 있다.	△ 同時에 여러곳에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봉합주소를 일일이 써야 하고 또  봉합  속에 넣는  때  시간이  걸린다.
通信文의 保存性 (記錄性)	○ 原稿 및 模写가 남는다.	× 記錄이 남지 않는다.	○ 記錄이 남는다.	△ 発信側은 複写를  떠  들  必要가  있다.
情報內容의 任意性	○ 文字건 圖形이건 보낼 수 있다.	× 圖形 등을 말로 說明하기  힘들다.	× 한글·英文·數字  뿐  漢字 및  圖形은  보낼  수  없다.	○ 文字건 圖形이건 보낼 수 있다.
經濟性	○ 10秒機라면 서울·釜山間이라도 한장에 75원, 60秒機라면 450원	× 10分 以上의 長 距離電話는  비싸  다.	× 비싸다	○ 80원에 보낼 수 있다.

나 図形을 그려져 있는 그대로 보낼 수 있고 (情報內容의 任意性 및 正確性), 電話처럼 직통으로 상대방을 불러내어 한장의 文書送達에 10秒~60秒밖에 안걸리고 (迅速性), 相對方이 不在中에도 보낼 수 있고 (常時 交信性), 送信者·受信者 모두에게 記錄이 남는다 (記錄性). 또 操作은 国民學校 學生마저 쉽게 쓸 수 있고 (操作의 容易性), 通信料는 한장만 보낸다면 속달 郵便料보다도 싸다.

또 텔렉스나 電報의 경우에는 한글이나 英文밖에 못쓰지만 팩시밀리는 漢字도 쓸 수 있고 손수 쓴 글이나 손수 그린 그림도 있는 그대로도 보낼 수 있다 (<表1> 參照)

그리고 同報機能이라 해서 個人컴퓨터와 연결시키면, 미리 지시해둔 數百 곳에 같은 내용의 원고를 동시에 보낼 수가 있다.

### 팩시밀리 서비스의 勸奨

그렇다면 그 팩시밀리의 보급은 왜 늦어졌는가? 그 이유의 하나는 선전 부족이었고 또 하나는 機械自體의 비싼 값 때문이었다.

팩시밀리의 값은 대충 따져서 複写機와 값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도 複写機는 굉장한 보급을 보고 있는데 反해 팩시밀리의 보급은 아직도 미비하다.

물론 複写機 쪽은 利用者도 많거니와 1件當의 複写枚數도 많다. 따라서 길거리에는 複写代行 業體들이 계속 늘고 있다. 예컨대 筆者가 있는 高大理工大 周邊에만도 약 10여군데나 있다. 또 물론 筆者가 屬해 있는 理工大안에도, 物理學科內에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

사실 노트 한장, 또는 노트 두장의 內容이 4~5 초내로 복사되어 나오고 그 값도 단돈 20원이라니 편리하기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中間考査나 期末考査때가 되면 親旧 노트 북을 빌려다 몽땅 복사하는 學生들로 복사집은 야단들이다.

그러나 팩시밀리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팩시밀리는 遠隔複写機이기 때문에 적어도 表面上 大量 利用은 좀처럼 있기가 어려워 보인다. 또 복사기는 복사를 부탁한 사람이 自己自身을 위해 복사한 까닭에 利用者가 많은데 비해, 팩시밀리는 相對方도 팩시밀리로 갖고 있어야만 보낼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電話機처럼 一家口 一팩시밀리時代, 또는 1

會社 1 팩시밀리 時代가 되기 前에는 利用이 힘들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韓國의 現實은 아직도 팩시밀리 한대마저도 갖고 있지 않는 大學이나 大學校가 있을 정도이니 이 나라에 팩시밀리 文化가 開花하는데에는 아직도 당분간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大學校마저 한대도 팩시밀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大學當局者의 情報時代에 對한 無識性도 문제이거나, 電子業體 또는 그 販賣會社들의 無誠意도 문제가 된다. 그때 어떤 販促活動을 했길래 情報化 時代가 눈앞에 다가온다는 이때에 아직도 大學에 마저 팩시밀리 한대를 보급시키지 못했는가 말이다. 정녕 예산이 없다면 왜 공짜라도 한대 안 주었느냐 말이다. 공짜로 기증받고 한번 써 보기만 했다면 그 便利性·그 經濟性으로 因해 곧장 두대 세대를 增設했을 것이고, 地方分校나 事業體를 갖는 大學이라면 地方分校나 附屬病院 또는 財團의 여러 事業體用 등으로 10余個는 단번에 팔 수 있었을 터인데도 말이다.

### 知能화된 病院 : 팩시밀리로 모든 것을

예컨대 外國의 경우라면 한 病院에만도 100余대의 팩시밀리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診療가 끝나 藥局으로 가면, 藥局에서는 診療各科로부터 팩시밀리로 10초사이에 보내온 처방에 따라 患者가 藥局 窓口에 갔을 때는 이미 藥의 처방이 다 끝나 즉석에서 처방된 藥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 결과 옛날처럼 藥局이나 會計課앞에서 참을성 있게 장시간 기다려야 할 불편은 없게 되어 窓口앞이 붐비는 일도 없어진다.

또 물론 各科사이도 수시로 팩시밀리로 情報가 오가게 되어 있다. 예컨대 X線 촬영결과라든가 X線CT(컴퓨터 斷層撮影)의 결과 判定 또는 血液檢査나 기타의 檢査結果도 즉석에서 診療各科로 보내져서 診療時間이 무척 빨라진다. 그래서 그 만큼 많은 患者를 다룰 수 있어 病院으로서의 크나큰 이득을 얻게 된다.

病院의 例는 數 많은 例中의 하나에 불과하다. 不動產 業體·區庁이나 洞事務所에서의 호적등본·印鑑證明·住民登錄證 原本·身元證明 등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도 팩시밀리를 쓰면 손쉽게 이루어진다. 예컨대 濟州道에 본적을 둔 사람이라도 서울의 自己가 속해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팩시밀리로 濟州

를 불러내서 단 몇분만에 호적등본을 팩시밀리로 送付받을 수가 있다. 비싼 돈을 들여 濟州道에 갈 필요도 없고, 往復에 7~8日이나 걸리는 우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단 數分안에 호적등본, 軍服務에 관한 書類, 주민등록증 등본·印鑑証明마저도 손쉽게 入手할 수가 있게 된다.

### 팩시밀리 茶房도 있음직

또 各會社가 최소한 한대석이라도 팩시밀리를 갖고 있는 時代가 된다면, 한장의 서류를 보내기 위해 택시를 타거나 또는 며칠씩이나 걸리는 우편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아무곳에나 팩시밀리가 장만되어 있는 곳에서 送稿를 하면 되니 말이다.

그래서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도 팩시밀리 茶房, 즉 팩시밀리를 설치해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하는 茶房도 출현할 것이 예상된다. 예상된 다라기보다 팩시밀리 세일즈맨(販賣社員)이라면 이런 茶房들을 설득시켜 모든 茶房에 한대씩 팩시밀리를 설치하게 販促運動을 전개시켜야만 한다.

커피를 한잔 마시는 사이에 부탁한 書類나 情報은 팩시밀리를 통해 한장한장 本社 文書課로 電送이 된다. 더구나 地方出張을 갔을 때 팩시밀리 茶房의 위력은 대단할 것이다. 또 서울 市內라도 한 장의 書類때문에 땀흘려 뛰어가거나 할 필요 없이 가까운 茶房에 들어가 팩시밀리로 서류를 보낼 수 있다면 事務能率은 무척이나 올라갈 것이다.

茶房뿐만 아니라 文房具店·家電製品店·꽃가게·가솔린 注油所 등등도 팩시밀리를 설치한다면 그

편리성으로 因해 손님을 끌 수가 있게 된다.

또 禮式場이나 호텔 등에 팩시밀리가 마련되어 있다면, 팩시밀리 茶房에 들어가 直筆로 손수

「야 정말로 결혼을 祝賀하네. 안타깝게도 그 時間에 重要회의가 있어 난 참석못하니 미안하다」 등과 같은 글을 肉筆로 쓰고, 또 친한 사이라면 慢畵라도 같이 그려서 禮式場으로 보낼 수가 있다. 그거야말로

「귀하의 賀축성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따위의 구태의연한 格式차린 電報文보다 훨씬 부드럽고 마음이 통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브라이달 팩스(結婚祝賀用 팩시밀리) 말고도 호텔에서 하고 있는 各種 行事에도 팩시밀리는 祝賀文·激勵文·感謝文 등등을 보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

「팩시밀리는 비싸니까」 또는 「팩시밀리는 利用頻度가 적으니까」 등등의 핑계를 들지 말고, 조금더 적극적인 자세로 綜合病院·製造會社(數百곳의 많은 代理店을 거느리고 있다). 茶房·文房具店·家電製品 販賣店·꽃집(팩시밀리로 生日날에 꽃을 집에까지 配達을 부탁) 등등을 파고 들어간다면 팩시밀리 붐을 일으킬 수가 있다. 팩시밀리 붐을 일으켜 하루 빨리 팩시밀리 文化를 開花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팩시밀리 붐을 통해서만 事務自動化(OA)는 더욱 더 활발해지고, 마침내 이 나라에 情報化의 물결을 밀고 올 것이다.

